2024년 5월 2일

Economist 권희진
02-6114-2098 heejin.gweon@kbfg.com
연구원 김주은
02-6114-2924 junekim@kbfg.com

더 많은 리포트 보기

KB Macro

한국: 4월 수출, 고른 오름세 유지. 그러나 5월 앞 bumpy 조심

4월 수출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13.8%, 수입 5.4%로 전월 (각 +3.1%, -12.3%)과 달리 모두 플러스였다. 특히 수입액은 547.3억 달러로 작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전년비 증가하였는데, 이미 20일 기준 동향에서 수입액이 6개월 만에 늘어나 예상된 결과였다. 특히 원유의 도입단가가 3월 83.3달러에서 4월 89.0달러로 오르는 동시에, 원유 도입물량도 3월 8,260만 배럴에서 8,850만 배럴로 증가한 영향이 컸다. 그 결과 무역수지는 15.3억 달러로, 43억 달러 내외를 기록한 2~3월보다 흑자폭이 축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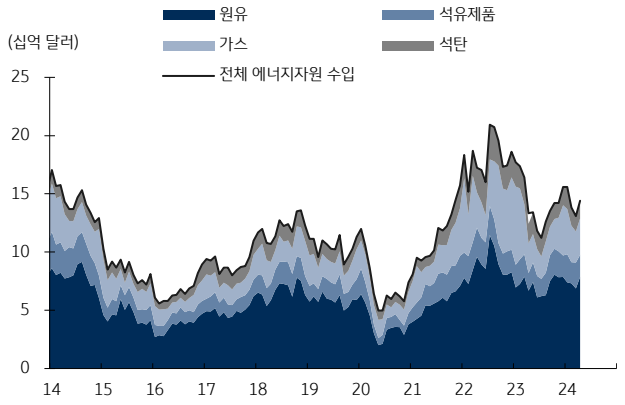
IT 업황 개선세 및 기저효과 영향에 선방. 1위 對미 수출은 역대 최대치 기록. 중국향 수출도 저점 탈출
15대 주요 품목 중 13개 품목에서 전년 대비 플러스 증감률을 보였다. 직전월에 이어 4월에도 IT 전반으로 업황 개선세가 확산되는 모습이 이어졌다. 4대 IT 품목 모두 전년비 두 자릿수로 증가하며 고른 실적을 보였다 (컴퓨터 +76.2%, 반도체 +56.1%). 자동차의 경우 팬데믹 이후 미국 내수 영향을 훨씬 강하게 받고 있다. 최근 미국 내 소비 호조에 힘입어 4월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67.9억 달러, +10.3% YoY).

지역별로는 9대 주요 시장 중 7개 지역향 수출이 전년 대비 늘었다. 이제 최대 시장이 된 미국으로의 114.1억 달러로, 전체 금액 내 비중이 2002년 10월 이후 처음 20%를 상회하였다. 반면,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은 줄었으나 이제 對중 수출 증가율도 저점을 지나고 있다는 점이 반가운 소식이다. 중국향 수출은 일평균 기준 올해 1월부터 4개월 연속 오름세가 확대돼 (1월 +4.1% → 4월 +7.5%), 4월 관찰된 중국의 경기 회복 전환 기대감을 높인다.

최근 물가 키워드인 'bumpy', 유가 매개로 무역수지에도 적용. 24년 수출 +9.3% YoY로 소폭 상향조정
최근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매크로 환경에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올해 한국 수출의 증가세는 견조한 것으로 판단한다. 먼저 수출 물량의 확대 흐름이 뚜렷하다. 지난 30일 발표된 3월 수치까지 반영하면, 수출물량지수는 작년 4분기 (+8.2%)에 이어 올해 1분기 전년비 6.5% 늘어났다. 이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 당시 증가율 (17~18년 평균 5.7%)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또한 반도체에 대한 초과 수요로 IT 업황의 개선 방향성이 유효해, 향후 하락 위험보다 상승 여력에 초점을 둔다 (김동원·유우형, 4/22). 또한 이번 수출 확대 사이클에서 단가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수출물가지수는 올해 들어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는 중이며, 전년동기비 변화율도 플러스 (+)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최근 중국에서 나타나는 저가 물량 공급 전략과는 다른 양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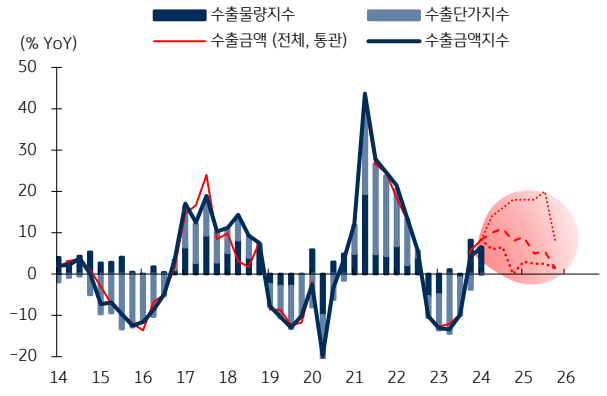
종합해 볼 때, 올해 수출 (통관 기준)의 성장 모멘텀이 지속되어 연간 9.3% 증가할 것으로 지난 전망 (2/26) 대비 소폭 상향조정한다. 그러나 최근 IMF가 2025년 주요국 수요 전망치를 소폭 하향한 점 (한국의 10대 교역국 수입수요 증가율 3%대 중반 → 2%대 후반 수정)을 감안하여, 25년 수출 증가율은 5.1%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수입의 경우 국제유가 상승 여파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만큼, 증가폭이 추가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 역시 울퉁불퉁 (bumpy)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무역수지의 추세적인 감소 전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그림 1. 4월 수입: 석유제품, 가스 중심으로 에너지 수입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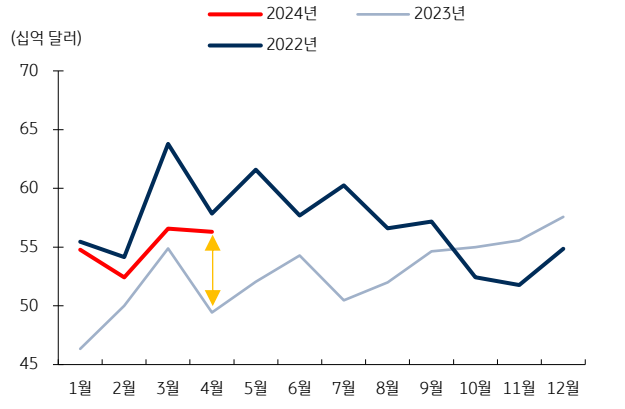
자료: CEIC, 관세청, KB증권

그림 2. 24년 수출, +9.3% YoY로 소폭 상향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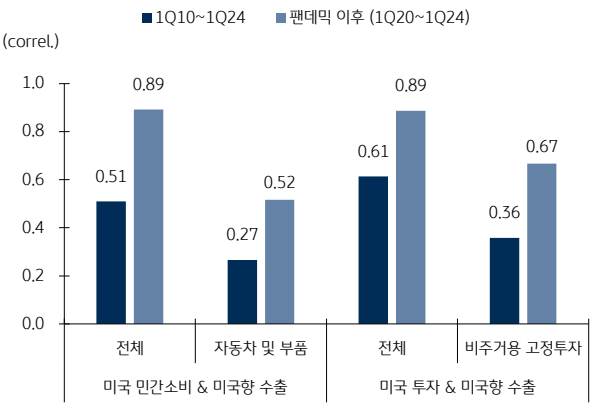
자료: CEIC, 한국은행, 관세청, KB증권

그림 3. 과거 3개년 수출액 추이: 이번 4월 수출에 기저효과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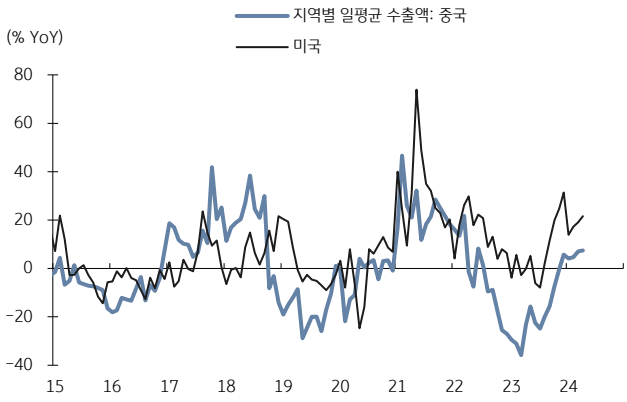
자료: CEIC, 관세청, KB증권

그림 4. 미국 내수와 동행하는 對미 수출, 미국 경제 호조에 수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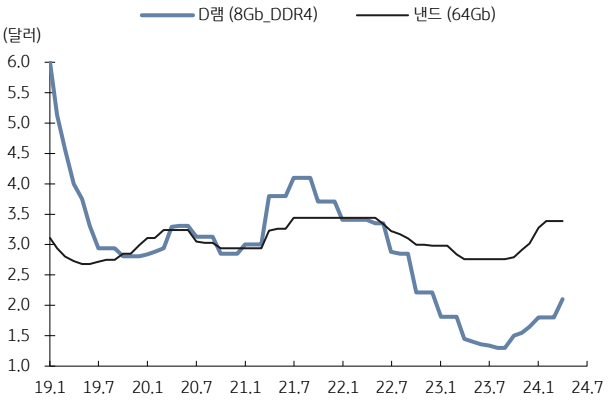
자료: CEIC, BEA, 관세청, KB증권

그림 5. 중국: 일평균 수출액, 4개월 연속 오름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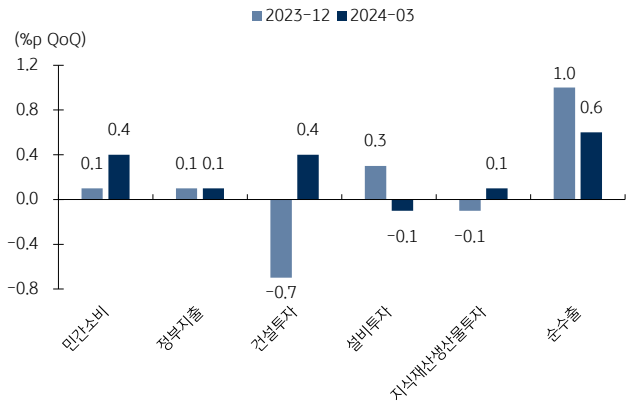
자료: CEIC, 관세청, KB증권

그림 6. 반도체: D램, 낸드 고정거래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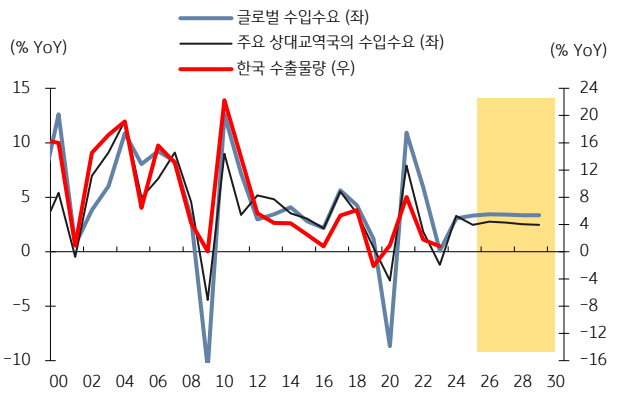
자료: DRAMeXchange, KB증권

그림 7. 한국 1분기 GDP: 전기 대비 성장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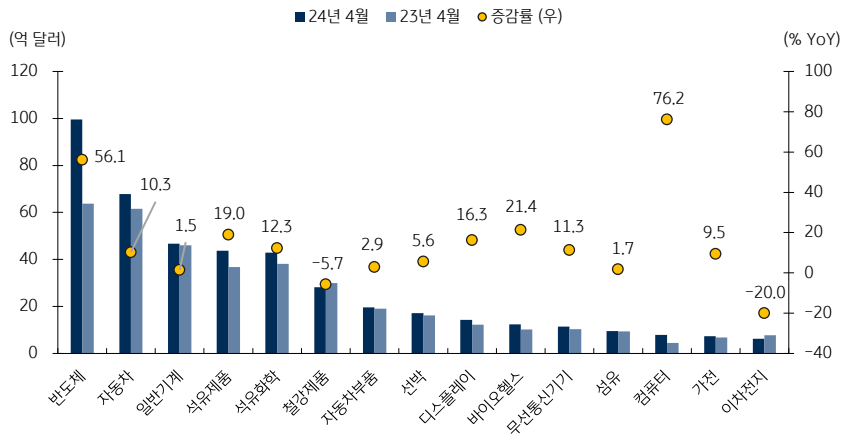
자료: CEIC, 한국은행, KB증권

그림 8. 대외 여건: 주요 교역국의 수입수요 증가율, 24년 > 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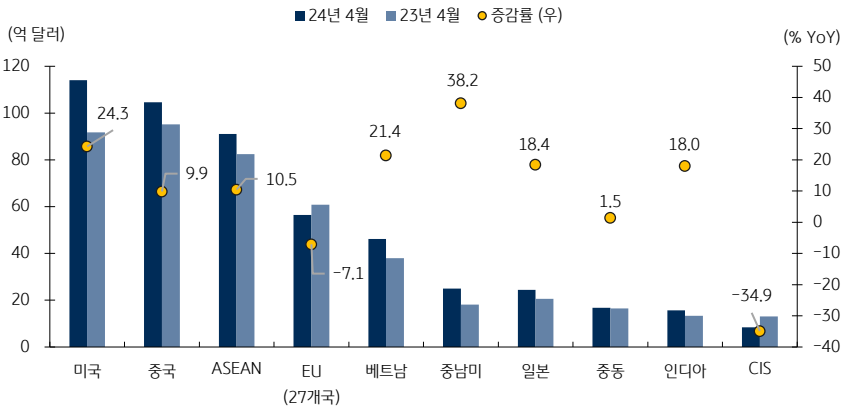
자료: CEIC, IMF WEO (2024년 4월), 한국은행, KB증권

그림 9.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자료: CEIC, 관세청, KB증권

그림 10. 주요 지역별 수출 동향



자료: CEIC, 관세청, KB증권

투자자 고지 사항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KB증권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KB증권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보고서는 여하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KB증권에 있으므로 KB증권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KB증권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